

2016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를 마치며

40주년을 맞은 한국고분자학회의 2016년 전무이사를 맡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10년 전 운영이사로 참여한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기쁨과 들뜬 마음이 있었다면, 전무이사로 참여한 지난 1년은 학회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회의 운영과 행사에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재정 부분은 조길원 회장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회원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행사였던 신기술강좌를 담당한 분자전자부문위원회의 이윤구, 의료용고분자부문위원회의 이재영 운영이사께 감사를 드리고, 화학연구원의 최우진, KIST의 고민재 운영이사의 제안과 기획으로 새롭게 도입된 산업체 세션(자동차용 화학소재)은 학회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봄학회의 시작은 평위원회에서 김은영 박사님의 40년 회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원로 분들의 노고와 올 한 해 동안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의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철희 운영이사와 포스터장과 각 발표장을 담당하며 조용히 섬기셨던 32명 운영이사의 헌신과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의 고분자포럼은 40주년 기념으로 차국현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고분자 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새롭게 기획하여 산업현장의 소리를 듣는 뜻 깊은 행사였으며, 모든 내용이 녹취되어 40주년 기념호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발표해주신 이상선 원장, 김양국 사장, 민경집 부사장, 이동우 소장, 이재홍 본부장, 패널로 참여하신 김상율, 김은경, 김준경, 박종수, 최길영 회원께 감사드리고, 운영 및 녹취를 담당했던 이민재, 고원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이화여대에서의 고분자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묵묵히 일해 주셨던 김경곤, 김봉수 운영이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분자학회의 40주년 기념 가을학회(IUPAC-PSK40)가 올해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김철희 프로그램위원장께서 제안해주신 'Celebration & Participation'이라는 구호와 같이 모든 회원들의 참여와 축하를 받으며 행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셨던 김윤희, 권용구교수와 11개의 세션 책임자들의 노력은 27개국 약 300편의 초청강연과 2,5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학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KIST 50주년과 한국화학연구원 40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하고, 다섯 분의 기초강연자와 세계 최고수준의 고분자과학자들이 한데 모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회의 앱(APP)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던 강영종, 이원보 운영이사, 전체행사의 진행을 맡아주신 이준영 공동위원장의 관록과 이종휘 부위원장의 세밀한 운영, CES 이랑씨의 도움, 외국 초청연사들께 일일이 인사하며 다가간 홍성철, 유필진 재무이사의 봉사,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서 수고하신 운영이사들의 노고가 태풍이 스치고 지나간 제주에서의 행사를 무사히 그리고 모든 회원들과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기쁘게 축하하며 지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조성운, 유영재 운영이사의 도움으로 마지막 행사인 고분자기기분석이 마무리 되던 날 대전에서 서울을 향하는 기차에서의 한 시간이 제겐 너무도 홀가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의 40주년 기념 특집호의 두께와 내용에서 놀라셨다는 회원들의 반응을 들으며 수고하셨던 윤호규 특집위원회 위원장, 광영재, 진형준 부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문지와 영문지편집위원회의 원종찬, 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각종 위원회와 지부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셨던 학회 임원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기술지편집을 위해 수고하셨던 김봉수, 안석훈 운영이사와 원고의 집필 및 수정에 참여하셨던 기술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학회의 이기욱 실장, 김보경 과장, 이여라 대리, 원미나 대리의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오고가는 직장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회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하여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40주년 기념로고 제작, 4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을 해준 원미나 대리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무척 섭섭한 일입니다.

올해 수고하셨던 운영이사 분들과의 광주 GIST에서의 모임, 이태원에서의 추억을 뒤로하고,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늘의 운영이사분들이 주역이 되어서 기획하고 진행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좋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 매우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 40주년 'Celebration & Participation'.

〈2016년 한국고분자학회 전무이사 손대원〉

